

마을만들기를 위한 내러티브접근 연구

- 칠곡인문학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 경 옥**

[요 약]

본 연구는 성공적 마을만들기의 관건인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내러티브접근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와 내러티브접근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에 대한 단일사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내러티브접근으로 볼 때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는 주민이 다시 쓰는 대안적 마을이야기이다. 또한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주민을 마을만들기의 전문가로 존중하고 전문가가 탈중심의 자리에서 협력하였고, '생각밥상'과 '밥도둑유랑단'과 같은 비계를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였으며, 연령과 성별, 마을특성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 내기와 유대를 통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를 위한 내러티브접근의 원칙과 방법론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마을만들기, 내러티브접근,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 공동체

* 이 논문은 2018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바야흐르 마을만들기가 대세이다. 아키라(구자인 역, 2008)가 1980년대 『마을만들기의 발상』을 썼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이다. 아키라가 보기에 1960년대 이후 일본 열도가 ‘도시국가’가 되어 중앙정부의 도시건설과 지역개발로 전국이 획일화되면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도시적 생활이어서 예전 모습의 도시나 농촌이 모두 없어져버렸고, 이에 대한 반발로 도시 속에 의사(擬似) ‘고향’이 논의되기도 하고, ‘고향’을 상실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이후 양적성장을 추구하며 획일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을 하다가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특성과 주민의 참여에 기반을 둔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을만들기’란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의 번역어로 국내에 회자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전에는 지역주민운동, 지역사회운동 등의 명칭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산동네 중심의 도시빈민운동이나 아파트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는 ‘차 없는 거리’조성이나 꽃길골목 가꾸기, 담장 허물기나 시화문화마을만들기가 있었다. 200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운동’이었던 마을 만들기가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2003년 진안군이 전국 최초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이래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2012년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의 대안 중 하나로 마을만들기를 제시하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됐다(김세용 외, 2013; 남원석·이성룡, 2012). 도시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농촌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억제와 공동체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모두 ‘마을’을 만들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변화를 넘어 마을에서의 삶의 변화이고 사람의 변화이다. 마을만들기는 효율성과 신속성, 양적성장을 중시하며 획일적인 대규모개발을 하던 ‘도시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으로의 재생’을 지향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도시와 삶에 대한 ‘탈근대적 패러다임’으로 이라고 볼 수 있다(정동진·황정현, 2014.). 마을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와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강조하나 주민참여가 활발한 마을만들기 사례는 많지 않다.

사회복지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의 3대 사업에서 지역사회조직 기능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의 개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효과적인 마을단위 개입전략이나 성공경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강조하지만 기관 및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의 일방성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으로 내러티브 접근을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내러티브접근(narrative approach)은 대표적인 탈근대주의 상담기법으로 최근 사회복지와 정신건강, 상담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내러티브접근은 기존의 전문가중심, 문제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당사자를 문제해결의 전문가라고 보고, 사람을 문제시하지 않고 사람을 문제시하는 담론과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둘러싼 관계와 공동체, 역사를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이러한 전제와 방법론이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의 방법론으로 적합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의 방법론으로 내러티브접근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내러티브접근과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 활동을 내러티브접근에서 검토하면서 내러티브접근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마을만들기에서 유용한 가치와 원칙,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와 문화, 평생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아키라의 정의를 참고하자면 ‘주민들이 단순한 마을의 거주자를 넘어서 마을의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마을을 보다 편리하고, 인간답게 생활하는 공동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구자인 역, 2008).

지방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26개 조례에서도 마을만들기 개념에서 주민자발성, 주민참여, 공동체형성, 삶의 질 향상을 핵심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다(태재윤·박소현, 2010).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는 마을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 핵심적이다. 아키라는 사람들이 마을을 스스로가 사는 곳이라고 느끼고 협동하여 노력할 때 마을만들기가 가능하며, 마을만들기에서 사람을 연결시키고 관심을 표출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며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남원석·이성룡(2012)은 주민참여는 의견제시 수준을 넘어서 물리적 환경 정비나 프로그램 진행의 기획·운영·관리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동진(2013)과 진재문(2014) 또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증진이 마을만들기의 성패의 중요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참여는 활발하지 않고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및 운영에서 행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측면에서 보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주민대표 조직 내에서만 공유되고 주민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또 마을만들기 활동이 대부분 행정예산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재원을 매개로 관의 의사가 주민에게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 측면에서는 지방공무원 역량과 주민참여를 보장한 행정시스템과 같은 지원추진체계의 미비, 다양한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 중앙과 지방 정부의 갈등, 단기사업 중심의 접근, 전담부서나 인력 배치의 문제 등이 중장기적 전망에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미와 지향점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명확한 합의가 부족하고, 지자체 주도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면서 특정 시설 위주로 예산 의존적 사업을 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전문가나 민간단체가 마을을 떠나게 되면 마을만들기가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남원석 외, 2012; 진재문, 2014; 홍진이, 2013).

이러한 어려움에도 주민참여가 활발한 사례가 있다. 광주시 시화문화마을은 지자체가 제안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10여 년간 담벼락 시화판과 문화문패 달기, 소공원과 산책로 조성 등의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장수마을은 주민과 시민단체, 지자체의 협력으로 마을환경개선에서 시작하여 주민자치활동과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민소영, 2013; 여관현, 2015). 대전시 석교동은 주민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육아와 교육 중심의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해나가면서 주민참여수준이 높아지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였다(송두범, 임현정, 정선기, 2016). 농산촌의 경우는 고령화와 과소화로 행정 주도적 성격이 강하다. 진안군의 경우 지역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전담팀 신설 등으로 행정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그룹이 자문을 하면서 행정주도에서 주민참여확대단계로 발전하였다(서희석, 2017). 칠곡군 어로리마을도 사업초기 지자체와 전문가집단의 영향력이 컸으나 주민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역량이 활성화단계를 거쳐 자치화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하였다(이재민·임지혜, 2016).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는 주민과 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주민자치역량 강화의 단계구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여관현, 2015;이재민·임지혜, 2016)와 주민참여를 위한 활동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남원석·이성룡(2012)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해답 제시자가 아니라 과정의 설계자로서 개입하고,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향상시키면서 행정과 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보았다. 조혜진·유동철(2014)은 서울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관은 기존의 복지관 중심의 시혜적, 선별적인 복지체제에서 지역주민을 복지의 수혜자로 보고, 지역사회복지관을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인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강점에 초점 맞추어 지역의 강점을 인식하고 확인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민참여를 활발하게 끌어내기 위해 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민참여에 도움이 되는 실천방식이나 과정에 대한 실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마을만들기 활동 방법론과 원칙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보다 많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통해 내러티브접근으로 마을만들기에 어떻게 접근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2. 내러티브접근과 마을만들기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확산되면서 내러티브 접근(narrative approach)'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내러티브접근에서는 이야기(narrative)를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강현석·김경수 역, 2010).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접근을 상담의 기

법으로 발전시킨 화이트(White)와 엡슨(Eptson)의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야기치료는 내러티브 패러다임(narrative paradigm) 또는 내러티브접근(narrative approach)으로 불리기도 한다.

프리드만과 콤스(Freedman and Combs, 이경옥 외 역, 2006)에 따르면 이야기치료는 후기근대주의와 사회구성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주요전제 중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세계, 실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전제나 가정의 그물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두 번째는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의미가 이야기의 형식으로 조직화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으로 경험을 연결하여 ‘자기이야기(self narrative)’로 만들고, 이 이야기구조가 경험을 조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일상적 삶의 질서와 앞으로의 경험에 대한 해석의 기반이 된다. 네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이다’는 것인데, 문제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문제중심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a problem-focused story)’이며, 이것은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빈약한 이야기(thin story)’이다. 다섯째는 만남의 목표는 치료나 교정이 아니며, 문제중심 이야기를 해체하고, 그 사람 삶에 있는 소망과 가치, 목표와 헌신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이야기(alternative story) 또는 선호하는 이야기(preferred story)를 쓰는 것이다.

화이트와 엡슨은 개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를 집단이나 지역사회로 확장하였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야기치료’ 대신에 ‘이야기실천(narrative practices)’이나 ‘이야기작업’(narrative work)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치료’라는 용어가 병리적인 관점이 지배하는 시기에 사용한 것이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내러티브접근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야기실천(narrative practices for community)’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미영, 2016:179).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란 단어의 혼용을 염두에 두고, ‘내러티브접근’으로 부르되 필요에 따라 이야기치료, 이야기실천의 용어를 병용하기로 한다.

1) 내러티브접근의 인식론 - 마을만들기는 마을주민이 다시쓰는 이야기

마을에 대한 내러티브접근은 마을과 마을사람들에 대한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 문제중심의 이야기를 해체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야기, 대안적 이야기를 함께 쓰는

것이다.

내러티브접근을 통한 마을작업의 대표적 사례는 아프리카 말라위 지역에서 에이즈에 맞선 작업이다. 이 지역에는 에이즈가 창궐하였는데, 에이즈퇴치를 위한 시도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람들이 에이즈를 개인의 잘못으로 걸리는 병으로 알고 수치심과 낙인감 때문에 문제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실천가들은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는 접근으로 에이즈를 마을사람들과 분리시켜 에이즈씨(Mr. AIDS)에 맞서는 관심아줌마(Mrs. CARE)를 등장시켰다. 이는 종래의 전문가 강연과 교육으로 치료를 권하는 것과 달랐다. 주민들은 에이즈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고, 함께 연합하여 대응할 방안을 이야기하게 되었다(The CARE Counsellors and Sliep, 1998). 또 남호주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는 당뇨병을 ‘설탕Sugar’라는 이름으로 외재화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에 대응하게 되었다(Wingard, 2015).

그러면 마을만들기에 내러티브접근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내러티브 접근을 마을만들기에 적용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탐색을 할 수밖에 없다. 위 사례와 같이 마을의 안정을 위협하고, 주민들이 자신을 문제와 동일시한다면 문제중심 이야기를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대도시와 성장중심의 지역발전 관점이나 젊은 사람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농촌과 지방도시, 노인중심 마을은 뒤떨어지고, 활력이 없고, 변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치부되고, 주민들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마을에는 마을에서의 삶과 주민들에 대한 문제중심의 이야기가 지배한다. 이 문제중심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것을 마을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묻혀있는 마을사람들이 원하는 마을에 대한 소망이나 마을이 갖고 있는 자산, 마을사람들이 시도한 경험과 성취와 관련된 일화들을 끌어내어 대안적 이야기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한편, 특정한 지역문제의 해결보다 ‘공동체’, ‘살기 좋은’, ‘행복한’과 같은 원하는 미래(구자인 역, 2008)를 추구하는 마을만들기에서는 마을의 자산을 기반으로 대안적 이야기를 쓰는 접근도 가능하다. 어떻게 시작할지는 마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내러티브접근에서 보면 ‘마을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문제중심 이야기를 해체하고, 마을의 자산을 바탕으로 대안적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당사자 중심의 탈중심적(de-centered position)인 협력 관계

내러티브접근에서는 당사자가 자기 문제와 인생의 전문가이다. 다만 문제이야기의 영향으로 자기 인생이야기의 저자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동시에 실천가는 제각기 독특한 당사자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not-knowing)’의 자리에서 당사자와 협력해서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공동저자(co-author)의 위치이다. 실천가의 ‘중심에서 벗어나있지만 영향력 있는 입지(de-centered but influential position)’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마을작업에서 이야기실천가는 마을바깥에서 통용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준거로 주민들에게 특정이론이나 모델에 근거한 규범적 판단을 하거나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계몽하려하지 않는다. 대신 주민들을 마을문제의 전문가로 존중한다. 주민이 갖고 있는 마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들은 국지적이고 특수하고 독특한 것이며 사적 소유물과 같아서 외부자들이 개발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어서 대화를 통해 탐색해야한다(Freedman and Combs, 2009). 주민들이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된 내부자의 지식(insider knowledge)을 말하도록 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중심 이야기를 해체하고 대안적 이야기를 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대도시중심의 ‘단일하고 전제적인 지식’에 종속된 현지주민의 지식의 재발견이자 회복(White and Eptson, 1990)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전문가, 또는 마을이야기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존중하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을 조성해야 한다.

3) 비계대화-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이동하는 대화의 구조

마을만들기 내러티브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들이 마을과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하고,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치료에서 문제중심 이야기에서 선호하는 이야기로 이동하고 선호하는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저작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이 비계대화(scaffolding conversation)이다. 비계는 건축에서 작업자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발판이다. 변화를 위한 대화나 활동을 위한 발판역할을 하는 것이 ‘비계대화’이다. 변화는 전혀 새롭고 이질적인 것으로 시작되기 어렵다.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행위 주체(personal agency)로서 의식이 커지는 것이다.

비계대화의 구조는 실천가와 주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작업의 윤곽을 실천가들이 제시하고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채우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적게 질문하고 많이 듣는 것이 적절하다. 주민들이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체 모임은 말하기(telling) - 다시 말하기(re-telling)- 다시말하기의 다시말하기(re-telling of re-telling)의 구조가 효과적이다. 즉 전체모임을 진행할 리더들이 사전 모임에서 의제를 정리해서 전체 모임에서 이를 말하고, 다음에 소집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앞서 말하기에 대해 소집단 참석자들이 말하도록 하고, 다시 전체 모임을 하면서 각 소집단에서 모아진 이야기를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을 갖되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누고, 촘촘하게 공유할 수 있다(Freedman and Combs, 2009).

4) 사회적 구성과 공동체의 기여에 대한 관심

마을만들기는 ‘마을’을 거주공간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 주민들끼리 교류하고 유대감을 갖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에는 연령과 계층, 생활방식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내러티브접근에서는 연령이나 성별, 계층 등에 따라 경험이 다르며, 이 경험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양한 집단이 제 목소리를 내되 소외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에 힘을 실어서 보다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마을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실행할 구조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내러티브접근에서는 마을의 과거와 역사를 소중하게 여긴다. 마을과 마을사람들의 과거는 단순히 복구하거나 보존의 대상이 아니다. 이 속에는 주민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가치나 소망, 목표, 의도와 관련된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 이것들은 현재의 가치나 소망을 지지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중요한 근거와 자원이 된다. 이야기 실천에서 과거는 재소집된다(re-membering).

선호하는 이야기가 구성되면 인정의식과 회원재소집, 문서회람, 축하 의식 등을 통

해 공동체의 확인을 얻고, 대안적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유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내러티브접근에 기반을 둔 마을만들기는 마을이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동시에 대안적 이야기를 지지해줄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Ⅲ. 사례 소개

1.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 소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칠곡군 인문학마을만들기사업이다. 칠곡군은 인구 12만여 명의 도농복합도시이다. 인근 구미와 대구에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어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등 읍 지역의 인구증가로 증가세에 있으나 면 지역의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칠곡군은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군내에 평생학습대학과 18개의 어르신 성인문해교실인 늘배움학교가 있고, 70개의 마을회관에 평생학습강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38개의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을 진행해왔고, 2011년에는 인문학도시를 선언하였다.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 사업은 2013년 10개 마을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14개, 2015년에는 19개 마을로 참가마을이 늘었다. 2015년 참가 마을은 전통마을 12곳과 아파트마을 7곳이다.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에서 주민들은 활발하게 참여하여 다양한 마을활동을 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마을 활동으로는 가산면 학상리의 학수고대카페와 사람책 도서관, 왜관읍 금남2리의 아버지요리교실, 북삼읍휴면시아의 마을신문과 북카페, 북삼읍 승오3리의 덕담있는 초상화가, 지천면 영오리의 천왕제, 약목면 남계3리의 걱정기술 캠핑, 북삼읍 어로1리의 보람할매연극단과 할매밥상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마을활동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15년 금남2리가 제2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영오리가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우수마을이야기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어로리의 보람할매극단은 2014년 경북평생학습박람회 연극대회 수상을 포함하여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고, 2016년부터 어로리에서 ‘어로연극제’를 개최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러티브접근으로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이해를 위하여 사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사례분석’(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 2000)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자료 수집은 심층면접과 문서자료수집의 방법으로 하였다. 먼저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서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마을만들기 사업 보고서와 관련 책자(칠곡인문학마을주민들2014; 유알아트, 2016)와 칠곡군 홍보자료, 마을신문 및 일반 신문기사를 참고하였다. 이와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심층면접을 하였다. 심층면접은 마을리더 2인(A, B)과 외부전문가 1인(C)이다. 마을리더 A(50대, 남성, 작은마을도서관대표)와 B(50대, 남성, 귀농후 마을이장)는 마을만들기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외부전문가(C)는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 사업의 주관 단체의 일원으로 2년간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표와 원칙설정, 이의 실행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3년차에는 마을만들기 사업 정리작업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다. 면접은 심층면접은 A와 C는 1인당 2회, B는 1회 실시하였고, 1회당 60분~90분에 걸쳐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질적 분석작업을 하였고, 1차 분석 내용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확인을 거쳤다. 면접내용의 객관성은 문서자료와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자료와 심층면접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IV. 연구결과

1.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마을살이에 대해 다시 쓰는 이야기

- 함께 살아감이 즐거운 마을만들기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사업의 목표는 ‘인문학마을만들기’이다. ‘인문학마을’의 의미는 ‘주민 스스로 함께 살아감을 연구하고 실현하는 삶의 공동체’(유알아트,2016:8)이다.

이는 전통문화의 재현이나 고전 읽기, 인문학자의 강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문학에 대한 통상적 이해와 거리를 둔다. 마을만들기의 목표는 '삶의 즐거움을 아는 것(유알아트, 2016:18)'인데, 삶의 즐거움을 위해 무엇을 새롭게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삶의 즐거움을 재발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아픈 건 마을이 아니라 문화다(김지나, 2016)'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마을을 아프게 하는 문화란 농촌을 쇠락과 고립, 단절, 노후로 바라보는 시선, 도시의 활력과 새로운 것을 선망하는 시선이며, 이 때문에 농촌의 삶이 추체한 것이 되고, 농촌사람들의 삶이 무력해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마을만들기는 '아픈 문화(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농촌의 삶을 문제로 만드는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이다. 이것은 내러티브접근의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마을만들기의 출발은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마을만들기 원칙은 '마을활동은 마을단위로 생각해서 결정하되 마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주민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것, 주민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칠곡인문학마을주민들, 2014). 인문학마을은 사업이 아니라 활동이며, 주민들끼리 다시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임이며, 무엇을 할지 모른다면 주민들이 모여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활동이라는 것이 거듭 강조되었다.

사업초기에는 이전 정부지원 사업들에서와 같이 '지원'과 '사업' 중심의 요구가 많았다. 농번기 마을식당 조리사나 공동육아 교사 인건비,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학 중 점심 급식, 마을벽화와 전시관과 넓은 길,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어린이들의 특별교육 활동 지원과 같은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의식주처럼 기본적인 '살이'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 선정되었다. 할아버지 밥 때문에 문해교실에 나오기 어려워하는 할머니들을 위한 '아버지요리교실'로 할아버지들이 밥상을 스스로 차리고, 할머니들은 손자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배웠다(금남리). 아파트마을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구학습으로 시작하여 마을살이 교육을 하며 아이들과 이웃 전통마을을 찾아가게 되었고(부영아파트), 마을신문을 내고, 북카페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북삼읍 휴먼시아), 마을학당의 문해교실에서는 시를 짓고, 보람할매 극단을 만들어 연극을 올렸다(어로1리). 마을의 빨래터와 빨래터의 노래를 기억해내고 빨래터합창단을 만들었

다(승오1리).

이러한 마을활동을 통해 어린이들과 젊은 엄마들이 북카페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을 하며 전통마을과 교류하면서 농촌에서만 가능한 농촌살이와 문화를 향유하고, 마을단위의 축제와 행사를 주도하면서 삶이 풍성해졌다. 전통마을의 노인도 생활 기술의 전문가로 가르치고 배우고 아파트마을과 교류하면서 자부심과 활기가 생겼다.

(마을 어르신들이) 전에는 뭘 해보자고 하면 내일 모레 죽을 목숨인데 뭐할라고 하냐고, 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죽는 것이 아깝다고 하세요.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된 거죠(C).

내러티브관점에서 본다면 인문학마을만들기는 ‘함께 살아감이 즐거운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주민들이 다시 쓰는 이야기이다. 이제까지 농촌의 삶을 무시하는 지배적 이야기에 묻혀있던 마을사람들의 목소리와 재주들이 전면에 등장하였다. 마을만들기라고 무엇을 새로 만들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의 재발견이고, 주민들이 삶의 지혜와 참여, 활기와 나눔의 이야기를 다시쓰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만들기는 독특한 결과를 확장한 대안적 이야기의 재저작(re-authoring of an alternative story)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쓰는 이야기의 주제는 주민의 말을 빌자면 ‘별게 아닌 게 별게 되는 세상(B)’, 마을에서 살만한 세상이다.

별게 아닌 게 별게되는 세상이 되더라고. 잊혀진 것들이 새로이 탄생하고, 다른 인문학식구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돌고 도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 마을과 마을이 그러면서 교류를 하고 아이들이 없는 전통마을에서는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생겨난 것 같아(B, 북삼 휴먼시아 마을신문, 2017).

2. 주민 중심의 탈중심의 협력관계

주민이 마을활동에서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주민의 경험과 지혜, 능력을 가치있게 보고, 주민을 마을활동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을 기획의 원칙 중 하나는 마을활동은 주민리더가 주도하거나 일부주민이 희생하는 활동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했다. 주민참여는 논의는 마을리더 워크숍과 마을회의(생각 밥상)를 중심으로, 실행은 마을교사와 마을강사, 마을반장과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1) 논의구조 - 마을리더 워크숍과 생각밥상

마을활동을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시작이다. 마을만들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마을활동은 마을살이 설계 워크숍 - 생각밥상 - 마을살이 조정 워크숍 - 실행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을살이 설계워크숍’에서 마을 리더들이 모여 마을활동의 초안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각 마을회의인 ‘생각밥상’에서 주민들과 의논하고, 다시 이를 가지고 ‘마을살이 조정워크숍’에서 최종적으로 마을활동을 다듬고,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이야기치료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마을이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말하기(telling) - 다시 말하기(re-telling) - 다시말하기의 다시말하기(re-telling of re-telling)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를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을 갖되 마을 고유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뉘지고, 촘촘하게 공유되도록’(Freedman and Combs, 2009)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리더는 주민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주민의 앞에 서지 않고 주민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리더의 헌신과 지도력 또한 중요하다.

외부전문가들은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마을의 사업설계를 도왔다. 인문학마을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것이 마을활동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다. 종전의 마을사업과 같이 계량적 성과 중심, 과정보다 결과중심, 일반주민보다 소수중심의 문제를 보일 때 방향을 조정하였고, 주민들의 질문과 요청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조율하였다.

계속 한 얘기가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돼요!’(중략)……. 처음부터 가능한 한 주민주도로 갈 수 있게 마을주민의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마을살이 활동’을 계획하게 해요.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오히려 강요하고, 각 마을의 마을살이 설계는 도와주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주민들의 생각에서 나오고 마을이 합의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니까요. 그렇게 최대

한 주민참여를 넓혀 시작하면, 그 안에서 마을의 리더그룹들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은 그 마을의 리더들을 통해 주민과 소통되는 사업과 정책의 협의들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같은 기획집단(R단체)을 아예 제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 넘길 수 있는 역할은 기획집단에서 주민리더들에게 넘겨가는 겁니다(C).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마을의 일상과 연결되는 작업을 찾아내고 진행하는 것은 사전작업과 소통이 많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받아 똑딱 해치우는 단기사업이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마을살이 설계워크숍 논의가 길어졌고, 마을마다 필요한 개별 컨설팅을 하면서 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

마을리더와 외부전문가의 역할은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 달라졌다. 첫해에는 사업초기에 사업을 주최하는 칠곡군과 사업을 주관하는 R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리더 중 마을당 1명씩 주민기획자가 성장하여 19인의 주민기획자가 마을축제와 자체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둘째 해에는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인문학마을협의회를 발족하였고, 1기 마을리더가 2기, 3기 마을리더를 지도하였다. 군의 담당부서는 주민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일관되게 행정적으로 지원하였다.

2) 실행 - 마을교사와 마을강사 중심의 소모임

실행과정은 마을교사(마을주민 교사), 마을강사(마을이 초청하는 이웃마을 주민 강사), 소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마을강사는 주로 아파트마을의 평생교육을 마친 4~50대 여성들이, 마을교사는 전통마을의 7~80대 노인들이 담당하였다. 주민들은 의식주와 일과 놀이와 관련된 삶의 기술을 가지고 마을학당을 열어 전수하였다. 주민들이 주민에게 친숙한 문화를 가르치니 사람들이 편안하게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졌다. 이는 외부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나 내부의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하는 교육과정과는 상이하였다.

마을에 있는 마을자원을 활용하는 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셨고, 마을에 재주가 많은 분, 그분이 마을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정형화된

프로그램(외부 전문가중심의 프로그램은)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근데 우리하고 같이 있던 노인 중에서 ‘영감님!’하고 ‘할매!’하고 ‘언니!’하고 했던 분이 예전에 젊었을 적에 있던 재생공예 같은 걸 재생공예 강사가 돼버린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고,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고, 눈높이를 보통 주민한테 맞추는 거예요.(A)

19개 마을의 마을교사가 102명에 이르렀다. 할아버지와 어린이 요리교실, 감자 막걸리 주조에 솔잎농주와 시골두부, 화전, 짬뽕공예와 생활염색, 재생바느질과 재봉, 수의 바느질, 목공놀이, 요가, 감각수업, 육아와 그림 교실의 교사는 모두 주민들이다. 물론 적정기술학교나 제문쓰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마을교사와 함께 마을강사도 마을활동 진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주로 아파트마을의 여성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여 마을강사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젊은 활동가가 부족한 도농복합지역에서 전통마을의 문해교육 강사를 비롯하여 마을의 교사이자 이웃이자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며 마을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이끌며 마을인재로 성장하였다.

내러티브접근에서 보면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전문가와 행정 이 이를 돕는 ‘탈중심의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마을주민이 마을만들기의 활동내용을 결정하고, 마을마다 사람들이 가진 고유의 문화와 요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맥락을 조성하였다. 마을살이 워크샵부터 생각밥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마을활동에 마을강사와 마을교사가 마을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는 마을사업의 원칙과 사업실행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중심에서 벗어나있지만 영향력 있는 입지(de-centered but influential position)’에서 협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가 교육을 하고 떠나는 것과는 달리 주민이 전문가가 되어 마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다수의 주민들이 마을인재로 활동하며 역량을 키웠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그 성과가 마을에 환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지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비계 만들기

주민참여 원칙이 실현되려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대화의 구조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전문가나 주민리더가 주도하는 방식의 교육은 주민의 지혜와 기술을 끌어내기 어렵고, 반대로 자율로 맡겨놓을 경우 결과와 성과 중심으로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하거나 사적인 수다에 그칠 수가 있다. 전통마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인지라 공식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가 낯설었다. 그렇다고 10여개의 마을에 다수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대화를 진행하기도 어렵다.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에서는 밥상이나 마실 같은 일상적 형식을 변형하여 자연스럽게 다수가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다르게 만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마을회의인 ‘생각밥상’과 이웃마을과의 교류활동인 ‘밥도둑유랑단’, 리더 모임인 ‘학습소모임’이다.

1)생각밥상

‘생각밥상’은 주민들이 마을활동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주민참여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주민들이 바빠서 소수밖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각밥상’은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밥 한 끼 나누며 생각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는 마을살이 설게 워크숍에서 마을리더가 세운 마을활동 계획과 인문학 마을을 소개하고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였다.

마을활동은 ‘생각밥상’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한 마을의 생각밥상 예산을 30만 원 정도로 잡는데, 이는 실제 밥상 차리는 비용으로는 부족한 액수이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였다. 이렇게 차려진 생각밥상에서 나온 마을살이 과제는 제각기 마을의 독특한 자산과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었다. 밥상에서 마을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낯선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밥상은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마을일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첫해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안 해본 걸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밥 먹으면서 (사적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마을회장님이 외부에서 인사도 하시고, 마을 이장님이 올해 우리 마을살이는 이래이래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게 동화가 되기 어렵죠. 해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당연히 미리 선계획되어 있던 걸 수정을 원하는 분도 계세요. 첨삭을 하는 것도 있고.(A)

2) ‘밥도둑유랑단’과 ‘수다모임’

‘밥도둑유랑단’은 이웃마을에 대한 관심과 경계분위기를 적극적인 교류로 전환시킨 만남의 형식이다. 인문학 참여마을들은 전통마을끼리도 거의 왕래가 없었고, 아파트마을과 전통마을은 아예 단절된 사이였다. 10여개 마을들이 참여하고, 외부의 관심이 커지면서 마을간에 이웃마을보다 잘하려고 하거나 이웃마을에서 하는 것은 애써 안한다거나 마을간에 정보를 노출하려하지 않는 등 마을간 경쟁분위기가 생겼다. 이웃마을과의 관계를 공개적인 친교와 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네마실을 변형한 밥도둑유랑단을 모집하였다. 자기 마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을이 이웃을 초청하면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밥도둑유랑단이 되어 그 마을을 방문하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웃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둘러보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웃마을에 대한 경계와 견제는 무너지고, 호기심과 동질감이 커졌다.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어로리에 갈 건데’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다 같이 모여서 어로리에서 차려준 점심을 먹고 연극도 보고 사는 이야기를 듣고, 해가 지도록 승오리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껌껌해서 서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얘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C)

마을사람들간의 수다모임인 ‘학습소모임’은 주민들이 만나서 수다모임의 변형으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식사, 다과, 도서관입비를 진행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모여서 무엇을 하든 자유이나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보고해야했다. 글로 정리하는 과제를 빠뜨린 경우도 많았지만 ‘서면’으로 정리할 내용을 만들려다보니 마을이야기를 나누고, 사적인 친교와 공적인 업무가 연결되었다. 학습소모임은 마을과 마을의 만남으로 이어져 리더들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모임은 리더들의 협의체인 인문학마을협의회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2013년 7월 수다모임을 해서 처음 9개 마을이 만나서 서먹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우의도 다질 필요가 있다해서 만들었는데 12월에 인문학마을협의회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마을이 교류하고 연대도 하자 해서 만들었어요.(A)

내러티브관점에서 보면 생각밥상과 밥도둑유랑단과 수다모임은 ‘밥상’과 ‘마실’, ‘수다’라는 친숙하고 즐거운 일상의 변형이고, 먹고 둘러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하는 비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계들은 10여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쉽게 공적인 협의와 교류의 장으로 나오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칠곡인문학마을의 비계는 세밀한 대화방식이나 기술이라기보다 대화와 만남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4. 성별, 세대별, 마을별 목소리가 풍성한 공동체 만들기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의 특징은 마을활동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마을활동의 특성은 마을활동을 주도하는 집단이나 주요한 이해당사자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전통마을에는 할아버지나 중년남성의 서각공예나 적정기술과 학춤, 할머니의 연극공연과 빨래판공연과 이야기가 있는 이정표나 덕담있는 인물화 그려주기과 술 빚기 활동이 있다. 아파트마을에는 젊은 여성들의 마을도서관과 마을신문, 바느질교실과 어린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이나 꼬마탐방대, 꼬마장터, 꼬마텃밭 활동이 있다.

마을활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성별과 세대, 일과 놀이, 전통마을과 아파트마을간의 기존의 위계와 단절은 약화되고 소통과 협력이 증대하였다. 할아버지 요리교실에서 요리를 배운 할아버지들이 ‘여왕의 날’을 정해 할머니들을 초대하고, 마을행사에서 잔치준비와 설거지를 하였다. 덕분에 할머니들은 밥상 걱정 없이 나와서 한글을 배우고, 연극을 놓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80~90대 할머니들이 ‘인생과 요리교실’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장아찌, 효소, 장담그기 기술을 전수하였다. 아파트마을의 꼬마탐방대는 처음에는 멀리 도시의 박물관에 견학가다 밥도둑유랑단 이후 이웃마을 할머니들에게 마을이야기를 듣고 마을음식을 먹고 오고, 배추 수확 철에는 일을 거들고 배추를 받아가지고 왔다. 아파트주민에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마당과 밭이 생겼고, 전통마을에는 어린이와 젊은 사람의 활기가 들어왔다. 전에는 모이면 술을 마시는 남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화로 성능을 개선할지 연구자가 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

계속 공부하고, 누군가가 교사가 되어 가르치고, 노래나 연극을 만들어 올리면서 조용한 마을이 활기차게 되었다. 과거에는 각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이 나오게 되었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어울리던 마을이 마을회관에 와서 안부를 묻게 됐다.

이웃마을과의 교류도 확대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마을이 되었다.

마을 활동의 성과는 마을단위의 발표회와 전체 인문학축제에서 공유되었다. 각 마을 별로 전시와 발표회 겸 작은 축제에 이웃 마을을 초대하여 인문학 참여마을들이 서로 알 수 있고, 유대감을 경험하도록 하고,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인문학마을축제를 벌였다. 이전에 마을축제는 돈을 주고 가수를 불러왔는데, 마을축제를 주민의 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마을이 가진 가치들을 찾아보고,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마을사람들의 시와 노래, 그림, 음식, 연극과 연주,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마을과 마을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맞춤법이 틀리고, 그림을 배운 적도 없는데 주민들의 시와 그림과 노래가 박수를 받으면서 자기목소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마을활동과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주민들을 자신과 마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들이 잘하든 못하든 주민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전시를 할려고보니 할머니들이 지은 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지에 쓰고 그림을 그려서 마을길에 전시를 하니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더 꺼내지는데, 마을사람들은 그것이 돈 주고 불러온 가수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감동을 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외부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치있게 외화시키는 게 좋다는 것을 학습한거예요(C).

내러티브접근에서보면 마을만들기로 보편적 또는 대표적인 목소리에 묻히거나 보이지 않거나 종속되었던 시골마을의 노인과 여성, 아동의 다양한 생활경험과 현지주민의 지식을 드러내고 마을간, 세대간 교류확대로 인정받으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대안적 이야기가 풍성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을에서 제각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이야기공동체가 되면서 마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미를 얻고 힘을 가지게 되었다.

V. 결론

이제까지 내러티브접근에서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가지의 주제를 확인하였다.

첫째,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는 내러티브접근에서 보면 ‘함께 살아감이 즐거운 마을’을 주제로 한 대안적 마을이야기의 다시쓰기이다. 대도시중심, 외부자중심으로 농촌마을을 쇠락과 정체의 공간으로 규정하는 문제중심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마을의 가치와 주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마을이야기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평생학습의 성과와 마을주민들이 가진 삶의 기술과 경험을 끌어내어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할 수 있고, 주민의 생활이 될 수 있는 마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로 볼 때 주민참여를 촉진하려면 마을과 사람들의 강점과 자산을 출발점으로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방향성이 주민의 관심사와 일상과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을만들기를 대안적 이야기로 보고, 마을중심, 주민중심으로 마을문제를 풀어가는 내러티브접근은 마을만들기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에서 마을활동논의에서 실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을 마을만들기의 당사자이자 전문가로서 존중하며 탈중심적인 협력관계를 맺었다. 당사자중심의 원칙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와 실행과정에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설계 워크숍과 생각밥상으로 이어지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실행에 주민들이 마을강사와 마을교사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는 원칙과 방향성을 제안하고, 마을활동이 이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하였고, 마을리더는 역량이 강화되었다. 내러티브접근의 전문가의 탈중심적 위치는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역량강화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각밥상과 밥도둑유랑단, 학습소모임과 같은 비계를 활용하였다. 친숙한 밥상과 마실, 수다를 변형하여 공식적 회의와 교류의 장으로 만듦으로써 다수의 마을에서 주민이 쉽고 편하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민눈높이에 맞는 비계는 외부중심, 전문가중심의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사례 소개보다 주민참여에 효과적이다. 다수의 주민과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친숙하고 즐거운 활동의 변형과 같은 적절한 비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에서 연령과 성별, 마을특성에 따라 다양한 마을활동이 펼쳐지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대규모 또는 단일한 활동 대신에 다양성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참여주체의 목소리가 뚜렷하고,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다양성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의지할 필요성도 있어서 주민들간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마을간에도 유대가 강화되었다. 이로써 칠곡마을의 공동체성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접근을 통한 마을만들기에서 마을 또는 마을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되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러티브접근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내러티브접근의 원칙과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에서 주민참여는 핵심적이다. 내러티브접근의 마을만들기는 당사자 주도성, 일상생활중심, 다양한 목소리내기와 연결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활동의 전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공동체가 되는데 매우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칠곡인문학마을만들기는 내러티브접근에 따라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시론적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사례분석 결과 마을만들기에서 내러티브 접근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마을이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의 올바른 방법론은 없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와 마을만들기를 위해 내러티브접근의 원칙과 방법론을 적용하는 실험들이 검토되고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16. 『지역사회를 위한 이야기치료』. 서울:공동체
- 구자인. 2008. 『마을만들기의 발상.도시와 빈곤』. 田村明. 1987.まちづくりの發想. 한국도시연구소
- 김세용 · 최봉문 · 김현수 · 이재준 · 조영태 · 김은희 · 최석환. 2013.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도시정보』 37(1): 3-20.
- 김지나. 2016. “칠곡마을형성과 내러티브의 관계”. 한국이야기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남원석 · 이성룡. 2012. “마을만들기.성공의 조건”. 『이슈&진단』 47:1-25
- 남원석 · 장윤배 · 이성룡 · 이승연. 201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방안 연구.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 민소영. 2013.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의 경험: 광주시 시화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32-73.
- 서희석. 2017.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형성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진안군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1(3):53-74.
- 송두범 · 임현정 · 정선기. 2016.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정”. 『지역사회연구』 24(4):127-149.
- 여관현. 2015. “마을만들기 추진단계별 주민자치의 실천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 263-292.
- 유알아트. 2016. 『1000일.인문학마을』. 서울:빛을 만지는 아이들
- 이경옥 · 허남순 · 여혜숙 · 오세향 역. 2006. 이야기치료의 이론과 실제: 부부치료를 중심으로. Jill Freedman and Gene Combs. 2002. 서울:학지사.
- 이동진. 2013. “주민이 디자인하는 함께 Green 마을만들기”. 『공공사회연구』. 3(2):49-76.
- 이재민 · 임지혜. 2016. “칠곡군 어로리 인문학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27(S):593-608.
- 정동진·황정현. 2014. “마을 만들기 운동과 패러다임의 전환”. 『현대유럽철학연구』. 35:31-70.
- 조혜진·유동철. 2014. “지역사회복지관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관 실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6(3):159-183.
- 진재문. 2014.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과 삶의 질의 관계-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340-372.
- 칠곡인문학마을주민들. 2014. 『삶의 학교 칠곡인문학 마을-삶을 짓는 사람들의 창조적 실용공동체』 서울: 빛을만지는아이들
- 태재윤·박소현. 2010. “마을만들기 조례에 나타난 마을만들기의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7):175-182.
- 홍진이. 2013.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2):151-169.
- 강현석·김경수 역. 2010. 이야기만들기 - 법, 문학, 인간의 삶을 말하다 . Bruner, J.S., 2002.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 서울: 교육과학사.
- 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 2000. 질적 사례 연구. Stake. R.E. 1995. The Art of Case vStudy Research. 서울: 창지사.
- White, M. and D. Epton. 1990.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ew York: W.W. Norton.
- Freedman, J., and G. Combs. 2009. “Narrative Ideas for Consulting with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Ripples from the Gathering.” Family Process 48(3):347-362.
- The work of the CARE Counsellors and Sliep, Y. 2015. “Little by little we make a bundle Conversations with AIDS and CARE.”
<https://dulwichcentre.com.au/wp-content/>.
- Wingard, B. 2015. “Introducing ‘sugar’”. <https://dulwichcentre.com.au/wp-content/>.
- 북삼 휴먼시아 마을신문. 「꿈꾸는 세상」 2017.12.1. 인터뷰 기사-북삼휴먼시아마을신문발행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Approach for Maul-mandulgi
-Focused on Chilgok-gun Humanity Community Building Project
Case

Lee Gyeong-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narrative approach for maul-mandulgi through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the key to successful maul-mandulgi. For this purpose, I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ul-mandulgi and the narrative approach, then conducted the single case analysis on chilgok-gun humanity community building projec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narrative approach, Chilgok-gun Humanity Community Building Project was the re-authoring of alternative story by residents. Second, community residents was respected as the expert position in community life, the external expert group collaborated with residents in the de-centered position. Third, the scaffold like 'a meal table to think', 'babdodug wanderer' was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residents. Fourth, the residents voiced various voices according to age, gender, villiage, and were interconnected community. At last, I suggest some implic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narrative approach for maul-mandulgi.

key-word; Maul-mandulgi, narrative paradigm, community building, citizen participation, community welfare

[논문투고일: 2018.05.14, 심사일: 1차 - 2018.08.07 / 2차 - 2018.08.12, 심사완료일: 2018.08.15]

* Wonkwang Digital University/Dept. of Social Welfare